



완주군의회,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와 간담회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지난 5일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코리아타운 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2018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만들어진 코리아타운 협회는 최초 '상인조합'에서 마닐라시 조례로 '코리아타운협회'로 지정된 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마닐라 한인사회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순덕 운영위원장,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 유이수 산업건설위원 등과 코리아타운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완주의 관광상품 홍보와 우수특산물을 소개하는 등 완주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마닐라 코리아타운협회를 통해 마닐라 지역에 유통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진안군의회, 미래먹거리 발굴 위해 선진사례 견학

진안군의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전남 신안군과 보성군을 비교 시찰하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동창곡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섯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폐렴전 부지를 활용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자원의 선순환과 소득창출을 위한 '보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탐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인화 솔라시티'를 방문한 군의회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공유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소멸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이어 방문한 보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시찰하며,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조치에 대비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를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 죽항동, 취약계층 방문 통한 적극 행정 실시

남원시 죽항동은 추석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상담 지원과 돌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집중 살림 일환으로, 1일 1가구 방문 소문행정과 병행해 독거 어르신, 1인 가구, 저소득가구,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 상담에서는 안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물품을 연계·전달하며, 관심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집중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에서는 관내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덤프트럭 등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승용차와 달리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따르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이 절실한 만큼 관내 레미콘 업체 및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최근 화물차 교통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과속·난폭 운전 금지 등 법규준수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협조를 것을 당부하였다. /임실=전충영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희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모친상= 별세일: 8일, 빈소: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301호, 발인: 10일 오전 7시 10분, 장지: 1차(전주승화원) 2차(고창 공음선영), 연락처: 063-285-1009

전북하이텍고, 한솔케미칼과 산학협력 맺어

완주 거버넌스 협력 통한 첫 채용 협약... 기업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기대

전북하이텍고등학교는 지난 5일 (주)한솔케미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솔케미칼은 음극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인 탄소복합체(SC) 계열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음극재 분야 2차전지 소재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수 졸업생 채용 △미래 핵심 전략산업의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속가능한 기업최적화 교육과정 체계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주)한솔케미칼 전주공장은 앞으로 추천과 면접으로 우수 인재를 선정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성격,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매년 2명을 정사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협약은 지난 3월 구축한 완주 거버넌스(완주군, 군의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완주산단, 전북하이텍고)의 각 주체가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맺는 첫 채용에 관한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이 학교의 '취업플래너'로 위촉돼 성과가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직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개최

총 13가족 참여... 가족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위라벨 향상 기대

정읍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를 진행했다. 이 캠프는 직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총 13가족, 44명의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내장산 생태탐방원 등에서 1박 2일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내장산의 숲을 체험하는 '감성 여행' 프로그램, 미술공연, 가족 화합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다졌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는 시가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매년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 많은 직원과 가족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수 시장은 "이번 가족캠프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번 가족캠프를 통해 직원들의 위라벨(Work-Life Balance)을 높이고, 더 나아가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성료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4일 평화동 주차장 일대에서 교내 재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의 날 행사 'Welcome to the 사복 Village'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는 7일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 학과 동아리 '도나지', 가상복지관 'e-복지관', 전주완산이동보호전문기관, (주)휴먼케어인센스가 참가해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비롯한 사회복지 분야 실무 능력 향상과,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회복지학과 유도건 학회장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광혁 학과장은 "매년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포된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했다"며 "뜻깊은 날을 맞아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연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1988년에 신설돼 현재 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깊은 날을 맞아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연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행사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1988년에 신설돼 현재 3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장은성 기자

방대·소방 등 관계기관 50여명과 함께 도로 위 장애물을 제거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민·관이 협업한 덕분에 현장은 2시간 만에 정리가 되었고, 장비·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신속히 장애물을 제거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여 경찰청 공동체 치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흥덕파출소 김민수 경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공동체 치안 우수사례 선정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 흥덕파출소(소장 허만옥)는 지난 3일 12시 27분경 '원버디 차량이 소주 박스를 얹어 교통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112신고와 접하고 흥덕면 제하회전 교차로로 즉시 신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깨진 유리병으로 도로는 교통이 마비된 상황으로 2차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고 단순히 흥덕파출소 인력만으로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 즉시 군청에 트랙터 등 특수장비를 요청하고 자율방범대·의용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우리지역 역사배우기'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7일 '우리지역 역사배우기' 프로그램 4회차를 맞아 외국인근로자와 함께 진안 마이산과 임실의 옥정호 붕어섬, 치즈테마파크를 방문했다. 9월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신청자 모집의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센터 SNS에 모집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초기에 신청자가 폭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우리지역 역사배우기 4회차인 이번 여행은 제조업 근로자와는 다르게 농업 E-9(비전문취업비자)근로자는 일요일에 작업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토요일로 변경했다. 또한, 센터에서 근무하는 캄보디아 일일통역원이 함께 동행해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실의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 생태공원을 방문하고,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만들기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진안 마이산에서 전문 해설사와 함께 100여 년의 세월을 담은 탐사의 유래와 독특한 자연경관 등을 들으며 과거와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달인 10월, 장수·남원 가을여행을 마지막으로 올해의 '우리지역 역사배우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이민호 기자

금산면민의원장 공익장에 '장덕상 센터장' 선정

김제시 금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제31회 금산면민의 날'을 맞아 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면민의 장은 공익장에 장덕상(김제시 가족센터장)씨가 선정됐다. 장덕상씨는 금산면 기룡마을 출신으로 금산지역사랑운동회 봉사단을 창립하여 독거노인 1인 1회원 결연사업, 어버이날 케이션 달아주기 운동 등 여러 봉사활동에 앞장섰으며, 금산면 체육회를 조직해 면민 화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시상식은 7일 금산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금산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실시됐다. 김명철 금산면장은 "면민의 장은 우리 고향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께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진행된 금산면민의 날 기념식에는 면민의 장 시상식 외에도 민속경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 면민 노래자랑, 초대가수 축하공연 등 면민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김제=곽태기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사전 직무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5일,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2024년 하반기 신규 임명 의용소방대원 25명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신규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남성대원 14명, 여성대원 11명 등 총 25명으로, 관내 화재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 보조업무 수행, 봉사활동 등을 펼치는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며, 이번 교육에서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기초 소양 교육과 전문성 있는 현장활동을 위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청하 복지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동대(대장 이병연)가 지난 6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들 방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욕실 매트 설치와 주변 정리를 통해 재능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목적이 미끄러워 낙상 위험이 있는 노인 세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물론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복지동대원 10여 명이 동참했으며, 주변 정리 등을 병행 추진했다. 이병연 복지동대장은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통해 저소득 가구나 독거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청하면 복지동대의 바램"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8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원지사 632-0995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899
호치지사 010-8645-9835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익산지사 868-982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